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그림자 경제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의 관계는?
 - ◇ (초점)-美 금리 급등·자산스왑 후퇴가 불러온 패닉..시험대 앞에 선 스왑딜러들
 - ◇ (초점)-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고민..언제·얼마나·어떻게?
 - ◇ (초점)-급변하는 인디케이터, 갈팡질팡하는 달러/원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한 승려가 장갑차 옆에서 시위하고 있다. (로이터 현지 통신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2월19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05.9	0.1%	-1.8%	+6.5%	유로	1.2117	0.0%	-0.8%	+8.9%
100엔 대비	1,047.1	0.3%	0.4%	+1.1%	엔	105.43	-0.5%	-2.1%	+5.2%
유로 대비	1,338.0	-0.1%	-0.9%	-2.3%	위안	6.4888	-0.8%	0.6%	+6.7%
위안 대비	170.94	-0.2%	-2.7%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1,494.32	0.1%	2.9%	+7.2%
코스피	3,107.62	0.2%	8.1%	+30.8%	나스닥	13,874.46	-1.6%	7.7%	+43.6%
코스닥	965.11	0.1%	-0.3%	+44.6%	S&P500	3,906.71	-0.7%	4.0%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736.06	0.4%	11.2%	+19.8%
국고채 3Y	0.996%	0.1bp	2.0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44%	0.7bp	0.9bp	-14.5bp	미국채 2Y	0.109%	-0.2bp	-1.2bp	-144.0bp
국고채 10Y	1.875%	4.4bp	16.2bp	+3.0bp	미국채 10Y	1.340%	13.0bp	42.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9.24	-0.4%	22.1%	-20.5%	한국 5Y	22.2bp	-0.5bp	0.2bp	+0.1bp
금(현물)	1,782.31	-2.3%	-6.1%	+25.0%	일본 5Y	14.9bp	0.0bp	-0.1bp	-4.5bp
TR상품지수	2,875.06	3.7%	7.3%	+7.8%	중국 5Y	28.8bp	-0.4bp	0.7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2월 22일(월)>

- 관세청, 2월 1-20일 수출입 동향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1:00)
- 금감원, 보험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12:00)

<23일(화)>

- 금감원, 1월 중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한은,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한은, 2020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2020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실적(12:00)

<24일(수)>

- 한은,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1차관 브리핑(13:30)
- 한은,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2020년 12월 출생 및 사망 통계·2021년 1월 국내인구이동(12:00)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5일(목)>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
- 한은, 수정 경제 전망 (13:30)
- 기재부, 3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월 발행 실적(17:00)

<26일(금)>

- 기재부, 녹실회의(07:30)
- 기재부,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 KDI, 북한경제리뷰(12:00)
- 한은, 2020년 중 주요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2021년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27일(토)>

- 기재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2월 22일(월)>

- 중국, 2월 대출우대금리 (10:30)
- 미국, 1월 전미활동지수 (22:30)

<23일(화)>

- 미국, 2월 달러스런은 제조업 경기지수 (00:30)
- 중국, 1월 주택가격 (10:30)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2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2:30)
- 미국, 12월 주택가격 (23:00)
- 미국, 2월 소비자신뢰지수(자정)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증언 (자정)
- 일본 휴장

<24일(수)>

- 미국, 2월 텍사스 서비스업 전망지수 (00:30)
- 뉴질랜드, 뉴질랜드 연방은행 통화정책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월 건축허가 (22:00)
- 미국, 1월 신규주택판매 (자정)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 (자정)

<2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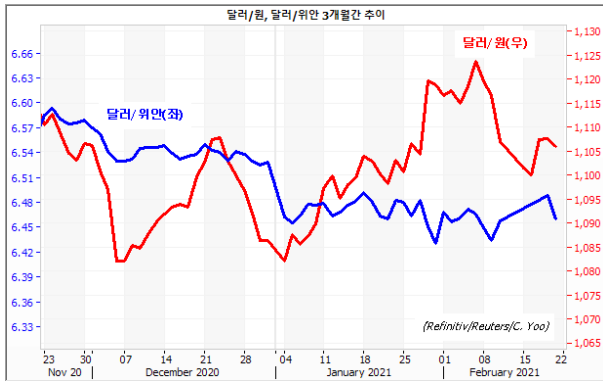
- 유로존, 1월 총 유동성 (M3) 증가율 · 가계대출 (19:00)
- 유로존, 2월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19:00)
- 미국, 4분기 기업이익 잠정치 · GDP 수정치 · 근원 PCE 물가지수 잠정치(22:30)
- 미국, 1월 내구재 주문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월 잠정주택 판매지수 (자정)

<26일(금)>

- 미국, 2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 (01:00)
- 일본, 2월 도쿄 CPI (08:30)
- 일본, 1월 산업생산 잠정치 · 소매판매 (08:50)
- 미국, 1월 개인소득 · 근원 PCE 물가지수 · PCE 가격지수 · 도매재고 (22:30)
- 미국, 2월 시카고 PMI (23:45)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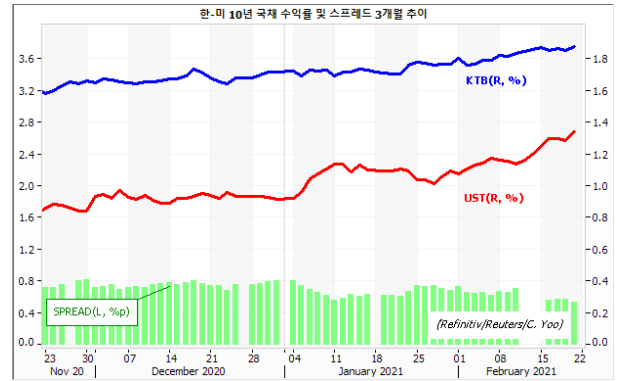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여전히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변동성 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95-1115 원이다.
-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를 뉴욕 증시가 반영하며 압박받고 있지만, 대규모 부양책 집행 기대도 이에 맞서면서 투자심리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 또한, 금리 상승에도 글로벌 달러가 강세 압력을 대거 확대하진 않고 있지만, 약 달러 추세의 조정 리스크를 배제할 수는 없다.
- 한편, 이달 초만 해도 강세 보폭을 키웠던 위안화가 춘절 이후부터는 당국 개입 경계와 미국과 중국 간 관계 악화 우려 등을 반영해 약세 변동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 네고와 결제는 꾸준히 소화되고, 외국인 채권자금 또한 확연히 유입 쪽이지만, 원화 변동성을 자극하는 외국인 주식자금은 시시각각 방향을 달리하면서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그때그때 모멘텀과 수급 따라 반응하겠지만,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가운데 주 초 환율은 2월 수출 중간 성적을 확인한 이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정된 이벤트 따라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24일)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25일)에 따른 시장 반응은 챙겨봐야 할 주요 변수다.
- 또한, MSCI 분기 리밸런싱(26일)에 따른 수급 파장도 염두에 뒀다 하겠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발표와 한국은행의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 의사 등을 확인하며 변동성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채권시장의 난맥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발표하면 채권시장이 안정을 찾았던 이전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지가 관건이다.
- 4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모두 적자국채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추경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한은은 유통시장에서 국고채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 일단 시장에선 한은이 7조~10조원 정도 매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때 총재의 발언에서 힌트를 찾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5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가 관건이다.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하원 통화정책 증언(24일)에서 현재의 금리 상승세를 꺾을 힌트를 주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연준이 장기채권 매입 확대나 수익률 통제 정책을 시행할지가 주목된다.
- 연준이 주가, 암호화폐 가격 등 자산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조짐을 무시한 채 또 한 번 시장 달래기에 나설 수 있느냐에 채권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칼럼)-그림자 경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와의 관계는?

(※ 이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실물 지폐를 빠르게 대체한다면 수조 달러 규모의 그림자 경제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최근 암호화폐 가치의 폭발적 급등이 이러한 상황이 임박했음을 반영한 것인 지다.

중국, 독일 등의 통화당국은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화폐를 위한 계획을 가속화해 왔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 민간 부문 암호화폐,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계와 컨셉이 언급되고 있어 무엇이 나타날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디지털화폐로의 이동은 실물 지폐와 동전의 종말을 알린다는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으나, 그 시기는 그렇게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미 여러 버전을 시험 사용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은 4년 안에 디지털 유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실물 화폐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면, 소유자와 거래 내용의 익명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실물 화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이나 활동들은 이에 적응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물 화폐를 이용하는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림자 경제'라고 부르는 곳에서 활동하게 될 수 있다.

그림자 경제는 대부분 세금, 규제 및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작동하며, 부가가치세나 고용세를 피하기 위해 청소부나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주는 가게부터 조직적인 범죄, 마약 거래, 심지어 테러 자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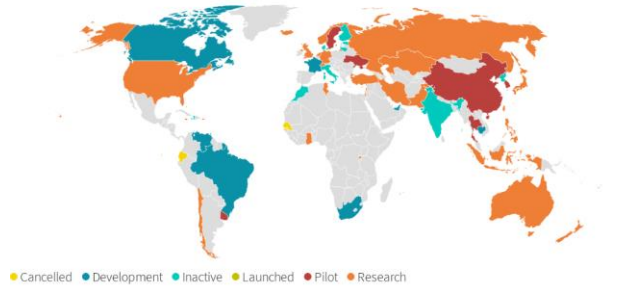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자 경제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 직전에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유럽 주요 국가 내 그림자 경제가 GDP의 20%에 달할 수 있으며, 일부 신흥 유럽 국가의 경우 그 수치가 35%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유로존만 놓고 봤을 때 이는 2조 유로 이상에 달하는 수준으로, 유통 중인 지폐 규모인 1조 2,000억 유로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주요 암호화폐들의 시가 총액인 1조 5,000억달러보다 더 큰 규모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cross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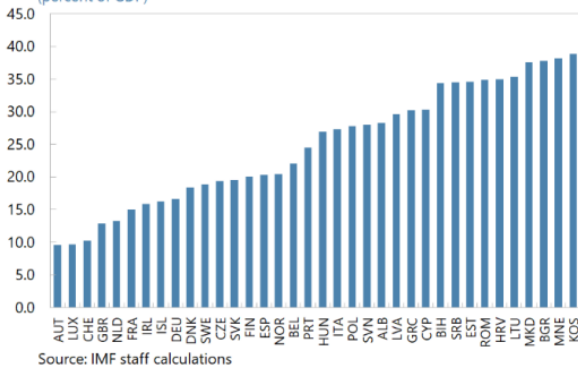
CBDC projects are moving ahead across the world - though few have gone past the drawing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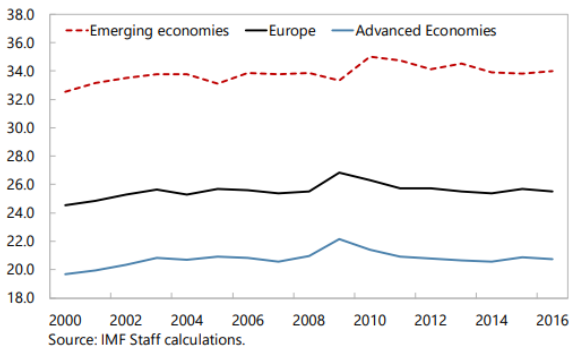
Note: European Central bank is conducting research for euro zone
Source: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 Atlantic Council, Reuters research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ize of Shadow Economy in European Countries, 2016
(percent of GDP)



Shadow Economy Estimates, 2000-2016
(Percent of GDP)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의 종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출시되더라도 현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 경제가 암호화폐 세계의 어두운 부분으로 이동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IMF는 단순 전자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자 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그림자 경제 활동을 장려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할 때, 새로운 CBDC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현재 유럽 내 많은 관심은 디지털 유로가 ECB에 직접 연계된 제로 수익률의 예금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ECB에게는 지폐와 같은 직접 부채지만, 리스크 회피를 원하는 저축자들이 시중은행 예금을 보유할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파비오 파네타 ECB 이사와 올리비 빈사일 ECB 시장 인프라 및 결제 담당 국장은 '티어 1' 예금을 가계로만, 최대 3,000 유로까지 제

한할 것을 제안했다. 보유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기업 또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경우 매우 낮은 마이너스 금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주 파네타 이사는 은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CBDC로 예금 인출 사태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티어 2' 마이너스 금리가 2~3%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림자 경제 내에서 활동하며 세금 및 감시 활동을 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눈에 보이고 추적 가능한 계좌를 중앙은행에 개설하고 싶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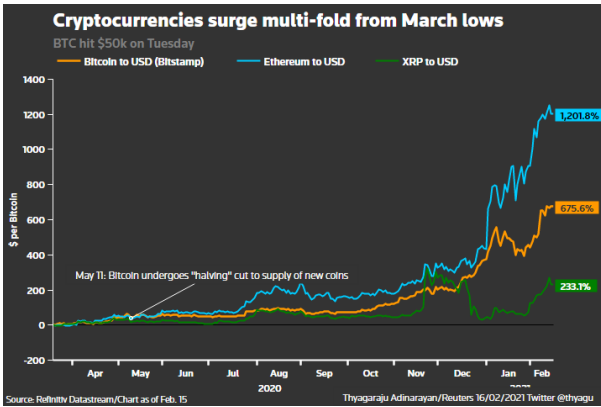
일부 경제학자들이 CBDC를 현재 대부분의 암호화폐처럼 디지털 형태이나 디지털 지갑에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갑과 지갑 사이를 이동하는 토큰의 움직임은 어느정도 추적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법정통화 토큰이 익명성에 100%의 존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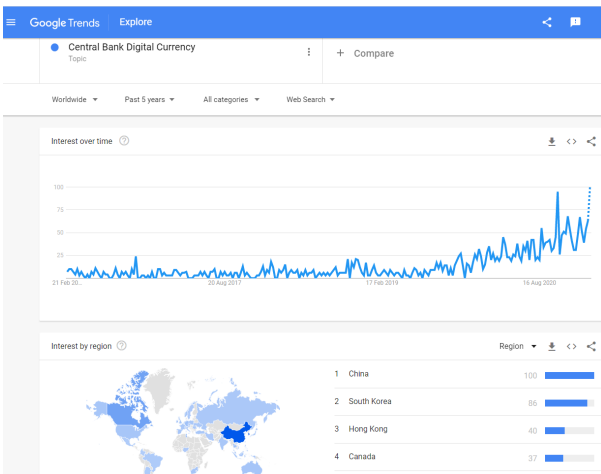
이코노미스트인 피터 보핑거와 토마스 하스는 제한이 없고 완전한 익명이 보장되는 CBDC 토큰 아이디어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메트라이프투자매니지먼트의 알렉산더 빌라캄파와 존 지양 전략가는 암호화폐 세계와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통화 시스템 통제권을 가져오기 위해 현재 중앙은행들은 CBDC가 필요하며, 토큰만이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CBDC 토큰이 없다면, 중앙은행들은 개인들은 암호화폐로 몰아넣을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美 금리 급등·자산스왑 후퇴가 불러온 패닉.. 시험대 앞에 선 스왑딜러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통화스왑(CRS) 시장에 밀려온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당초 예정됐던 자산스왑들이 미뤄지고 수급 공백을 노린 스쿼즈성 비드가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CRS 금리 급등으로 손실을 본 스왑 딜러들의 벼랑 끝 포지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美 금리 급등·자산스왑 후퇴에 스쿼즈성 비드..CRS 9년 금리 급등 '나비효과'

지난 17일 CRS 5년 증가 금리는 전날보다 9bp 상승한 0.555%, 10년 금리는 11bp 오른 0.95%에 마감했다. 1년과 2년 CRS 금리가 1.5bp 씩 오르는

데 그쳤지만, 장기 CRS 금리 변동성은 폭발한 하루였다.

5년 CRS 금리는 지난 15일 5bp 오른 데 이어 16일에도 2bp 오르는 등 사흘 동안 16bp 올랐고 10년 CRS 금리는 같은 기간 19.5bp 상승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CRS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지난 1일 현대캐피탈이 6 억달러 규모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부채스왑 비딩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당분간 CRS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국제 발행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135일 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기관의 외화채 발행이 소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다.

당분간 뚜렷한 부채스왑 파이프라인이 없는 반면 자산스왑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CRS 금리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 중심 비드 영향으로 슬금슬금 올라오던 CRS 금리는 설 연휴 이후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이 외화 채권 투자를 미룬 여파다.

다수의 은행이 기존에 나온 부채스왑 관련 헤지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산스왑 플로우가 끊기자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부채스왑이 집중됐던 5년 테너의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진 이유다.

일부 은행들이 부채스왑 포지션을 커버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기회를 노린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5년 테너로 몰려들었고 금리 변동성은 더 확대됐다.

전날 시장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9년 CRS 금리다. 이날 9년 CRS 금리는 15bp 급등하면서 딜러들을 경악하게 했다.

5년 CRS 금리 급등으로 손해를 본 딜러들이 5년 이하 테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브가 덜 섰다고 여

겨진 5년/9년 커브를 공격하면서 9년 CRS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18일에는 9년 CRS 금리 급등으로 손해를 본 딜러들이 대응을 위해 버터플라이 전략을 펴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자산스왑 회복 관건.. '베테랑 딜러 퇴진 공백' 지적도

스왑 딜러들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보험사 자산스왑 물량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다수의 기관이 큰 손실을 낸 상황이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급격한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선 최근 주요 국내 은행의 베테랑 딜러들이 2선 후퇴 또는 이직한 데 따른 공백이 이같은 스쿼즈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달러 커브가 스팀되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기 크로스 금리도 영향을 받았는데, 수급 쪽에서도 그동안 부채스왑 받은 게 커버되지 않아 페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자산스왑과 중공업 물량은 있다 해도 1, 2년 테너라 5년 이상 테너의 수급 풀림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스왑이 나오려면 장기투자기관이 해외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다들 지금은 달러 채권을 사는 게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작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미국 금리와 부채스왑, 역외의 포워드 매수, 장기 재정거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B 은행 스왑 딜러는 "일부 은행들의 포지션이 다 노출된 게 아닌가 싶다"며 "베테랑이면 포지션이 깨져서 비드를 너무 하고 싶어도 참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데 지금은 비드만 대고 기다리고 있으니 스쿼즈 하고 싶은 쪽에서 충분히 눈치를 채고 커브로 눌러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년과 5년 스왑베이스스나 금리 레벨을 보면 거의 다 온 것 같지만 손익이 깨진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부담"이라며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운용역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관망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화채 투자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 보험사 채권운용부장은 "기존에 달러 채권을 샀다가 물린 곳들은 기다려보자고 하겠지만 우리는 작년에 포지션을 많이 줄여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해도 좋은 레벨이라고 본다"며 "AA+ 애플 회사채를 사고 3년 스왑으로 헤지해도 기대수익률이 국고채 대비 70bp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까지 간다고 하니 부담이 있긴 하다"며 "다만 계속 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선 이 정도 금리 레벨이면 어느 정도 매수를 고민해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초점)-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고민..언제·얼마나·어떻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무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일정과 규모에 대한 논의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지난해 9월처럼 기간을 한정된 단순매입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금리 급등에 따른 단발성 시장 개입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 단순매입 규모 공식, 추경 + 학습 효과 + 시장 기대

한은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국고채 단순매입의 매입 시기,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고채 수급 불균형으로 장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시장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한은의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 발표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발행시장 직매입 가능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은 이후 이같은 기대감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의 규모와 기한이다.

한은이 이번에도 정례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한다면 지난해 9월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정부가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적자국채 7조 5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한 직후인 9월 8일 한은은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5조원 규모의 단순매입과 별도로 시장 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5조원 규모의 단순매입은 4차 추경으로 공식화된 7조 5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흡수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추경 규모와 과거의 단순매입 경험, 시장의 기대 수준 등을 정성적으로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단순매입 기한을 연말까지로 한정된 것은 2021년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며 신규 국채 발행이 이뤄진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9월에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일정을 공표할 때 추경 규모와 함께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다"며 "시장의 기대 수준도 정성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를 결정하고 기간을 나뉘기 때문에 로켓 과학은 아니었다"며 "이번에도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될지, 공개시장 운영이 원활히 될지 등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추경 또 나올 가능성에 고민 커져..단발성 개입 여부 말 아껴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와 기간을 결정해야 하는 한은의 현재 딜레마는 '불확실성'이다.

당장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경 규모가 결정된다고 해도 또 다른 추경이 단시일 내에 다시 편성되

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추경이 예상되는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한 법안 통과 이후 추가 자원 확보 논란이 재연될 것을 감안할 때 시계를 멀리 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추경이 이번으로 끝나고 더 나오지 않는다면 단순매입의 시계를 더 멀리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며 "추경이 또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과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9월의 경우 마지막 추경이라는 점이 뻔히 보였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이번에 추경 규모가 확정되면 시장 의견을 서베이하고 단순매입 규모를 가능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들은 추경 규모 확정 전이라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단발성 단순매입을 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것에 비하면 국내 금리는 많이 올라가지 않은 편이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해 보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한은이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냐는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점)-급변하는 인디케이터, 갈팡질팡하는 달러/원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달 들어 원화의 발걸음이 어지럽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2주 동안 급등분을 최근 1주일간 모두 토해내며 아래로 방향을 급선회하는 듯했지만, 17일 장 초반 다시 급등세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능하며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의 인디케이터가 시시각각 달라지면서 원화 단기 트렌드가 잘만 들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주요 해외 기관은 달러/원 '상고하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올해 들어 원화는 주요 아시아 통화 중 절하 폭이 가장 크다.

이렇듯 원화의 단기 전망은 한층 애매해졌다.

▲ 시시각각 변하는 인디케이터..갈팡질팡하는 원화

연초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대던 달러 약세와 위안 강세가 달러/원을 1080 원 아래로 밀어내려 했지만, 미국 경제 회복 차별화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자 달러/원은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졌고, 이와 함께 중국 인민은행의 시장 유동성 회수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우려가 투자심리를 타격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재확인되고,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가 강화되면서 위험자산과 통화들은 들쭉였다. 특히 위안화 가치가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로 속등하자 원화의 시선은 재빨리 위안화로 이동했다.

A 은행 외환 달러는 "상품 통화와 위안화 강세가 부상하면서 달러/원에 대한 역외 매도세가 거셌다"면서 "지난달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지만 연준과 중국 인민은행이 물려서자 결국 위험 선호에 힘이 실리면서 다시 달러 매도세가 붙는 듯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간밤 1.3%를 넘어 1년만의 최고치로 급등했다. 이에 달러는 강세, 위안은 약세로 방향을 돌렸다.

B 은행 외환 달러는 "금리는 상승 속도가 문제인데, 완만한 속도로 오른다면 시장은 이에 적응하고 그럴다면 증시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금리가 새로운 레벨로 들어설 때마다 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으로 원화는 뚜렷한 방향보다는 1100 원 중심의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 전망은?

원화의 주요 펀더멘털과 수급 가능자인 수출 개선세가 조명받고 있다. 이달 10일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폭증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업황의 특수성과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 경기민감 소비 업종의 대외 수요가 살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이 기세는 4-5월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와 맥을 같이 하는 원화의 성격상 중기 원화 강세 전망은 유효하다.

C 은행 외환 달러는 "백신 보급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글로벌 경기가 정상적 회복 경로를 찾으면서 환율은 박스권 하단을 타진하며 하락 흐름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1120 원대에서 고점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화 절상 속도가 가파르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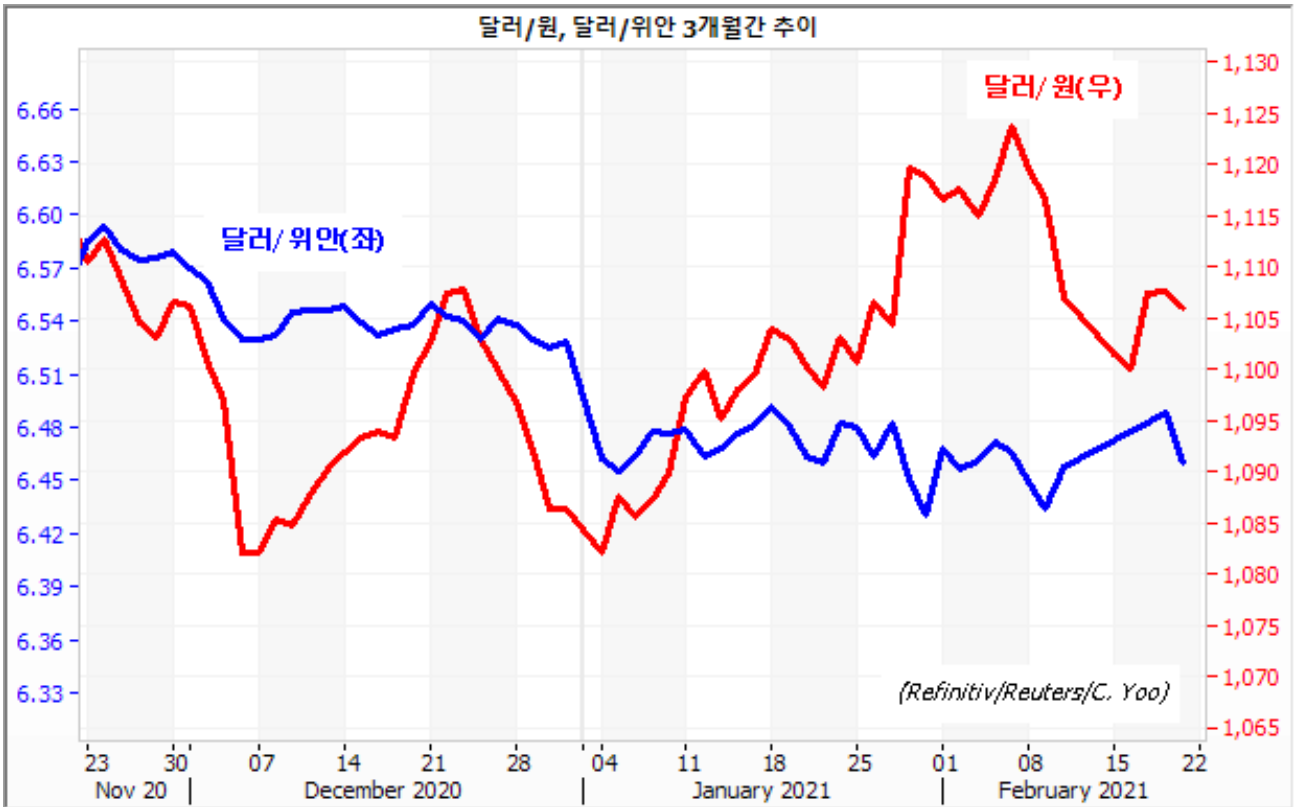
해외 투자 확대 추세로 유발되는 수급과 함께 원화 절상 시 당국 경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위의 C 은행 달러는 "수급상 기초적 변화도 있을뿐더러 환율 하락 때마다 당국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원화 절상에 속도가 붙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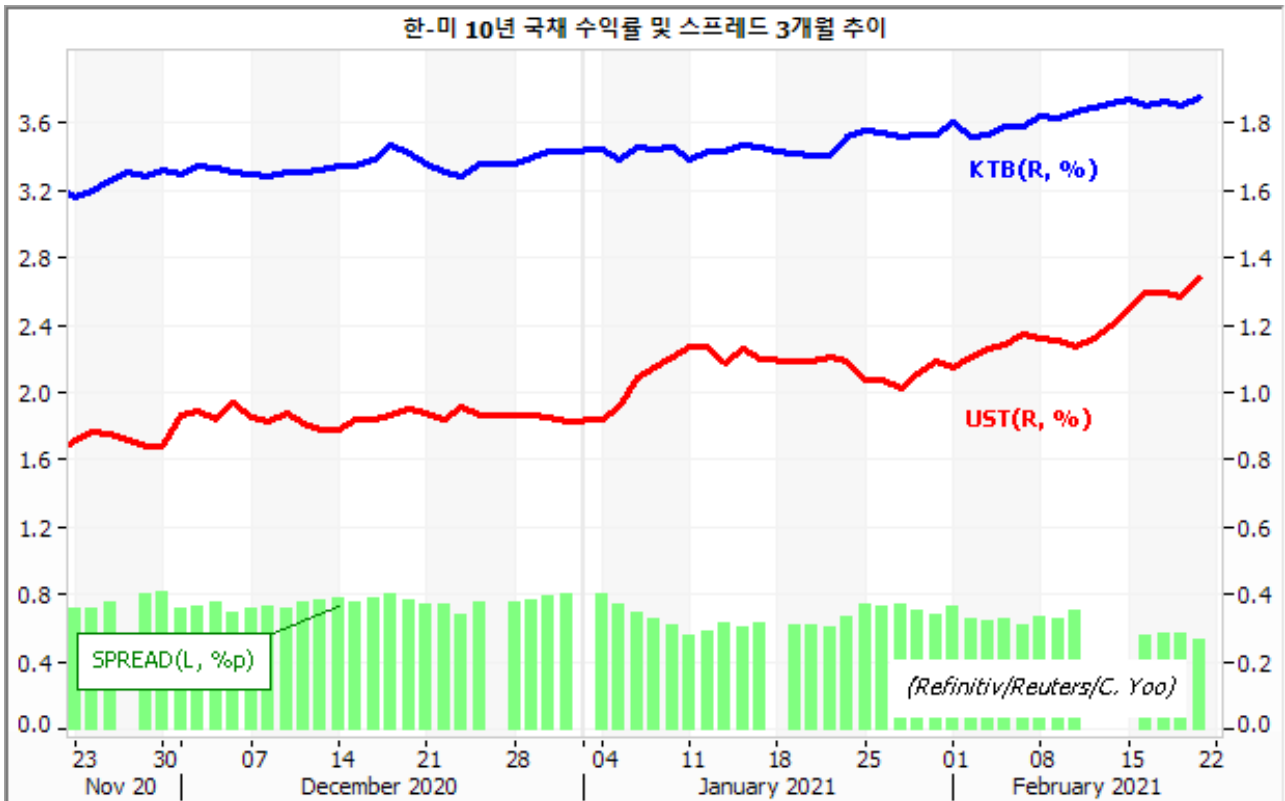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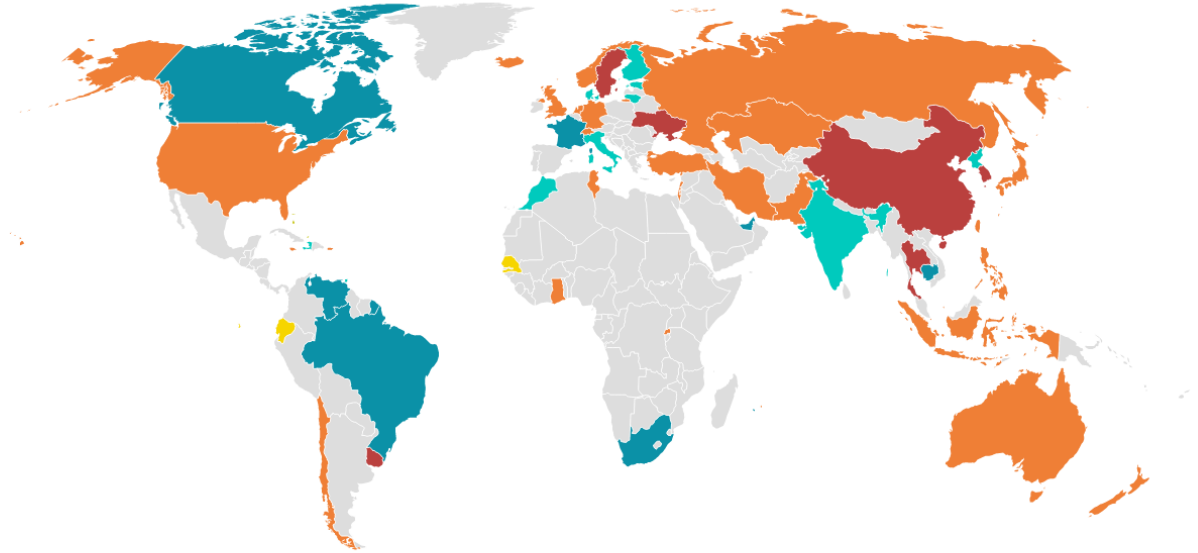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cross the world

CBDC projects are moving ahead across the world - though few have gone past the drawing bo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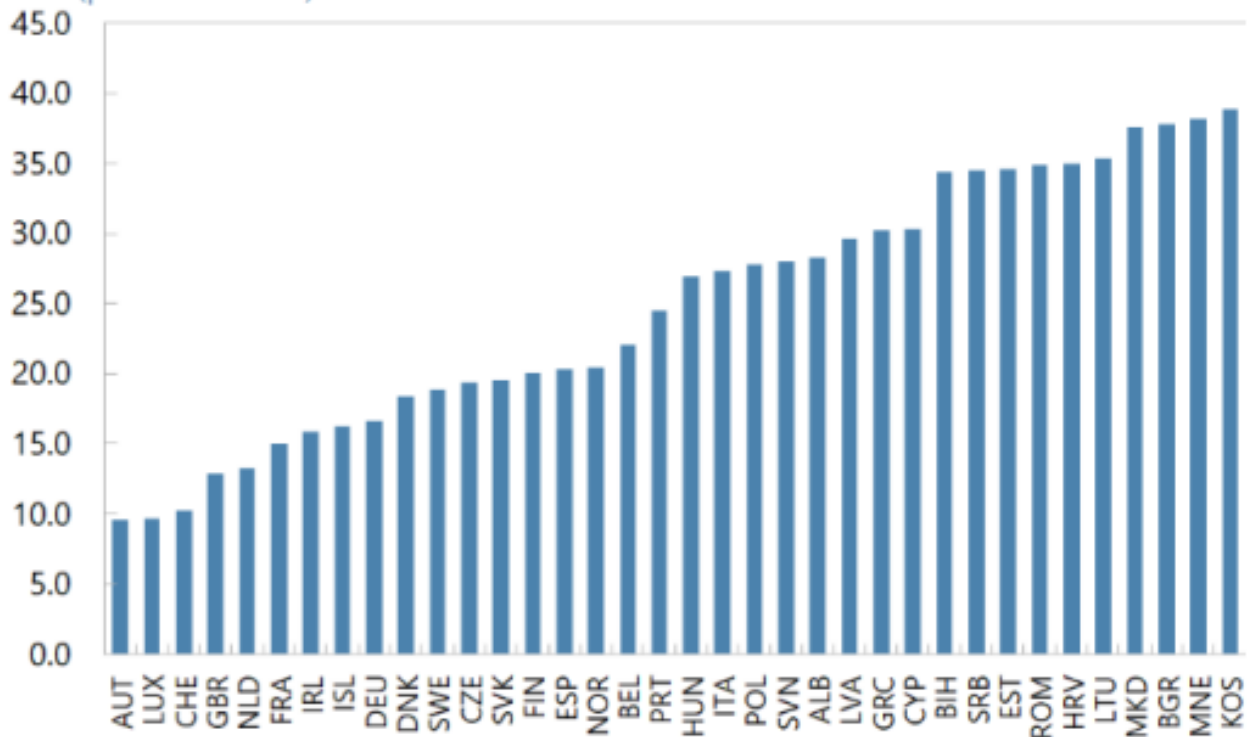
● Canceled ● Development ● Inactive ● Launched ● Pilot ● Research

Note: European Central bank is conducting research for euro zone

Source: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 Atlantic Council, Reuters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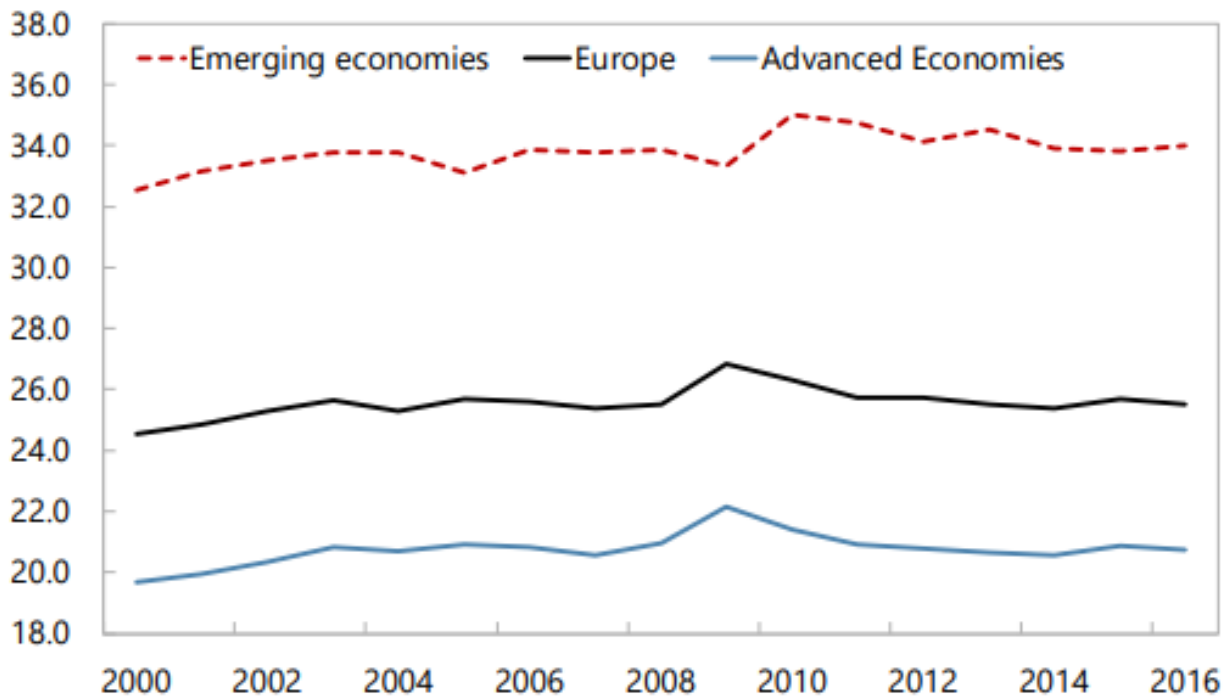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ize of Shadow Economy in European Countries, 2016 (percent of GDP)



Source: IMF staff calculations

Shadow Economy Estimates, 2000-2016 (Percent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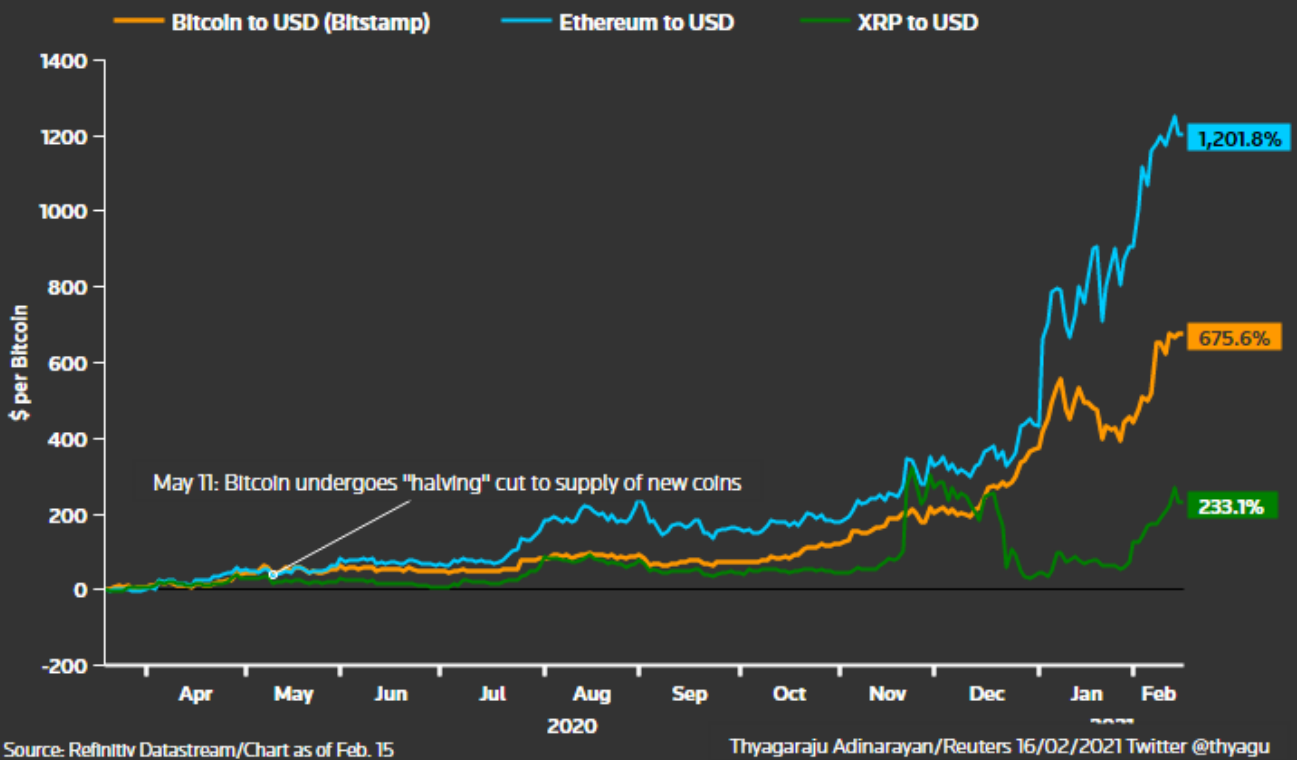


Source: IMF Staff calculation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ryptocurrencies surge multi-fold from March lows

BTC hit \$50k on Tuesday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opic

+ Compare

Worldwide Past 5 years All categories Web Search

Interest over time



Interest by region



Region	Interest Level
1 China	100
2 South Korea	86
3 Hong Kong	40
4 Canada	37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